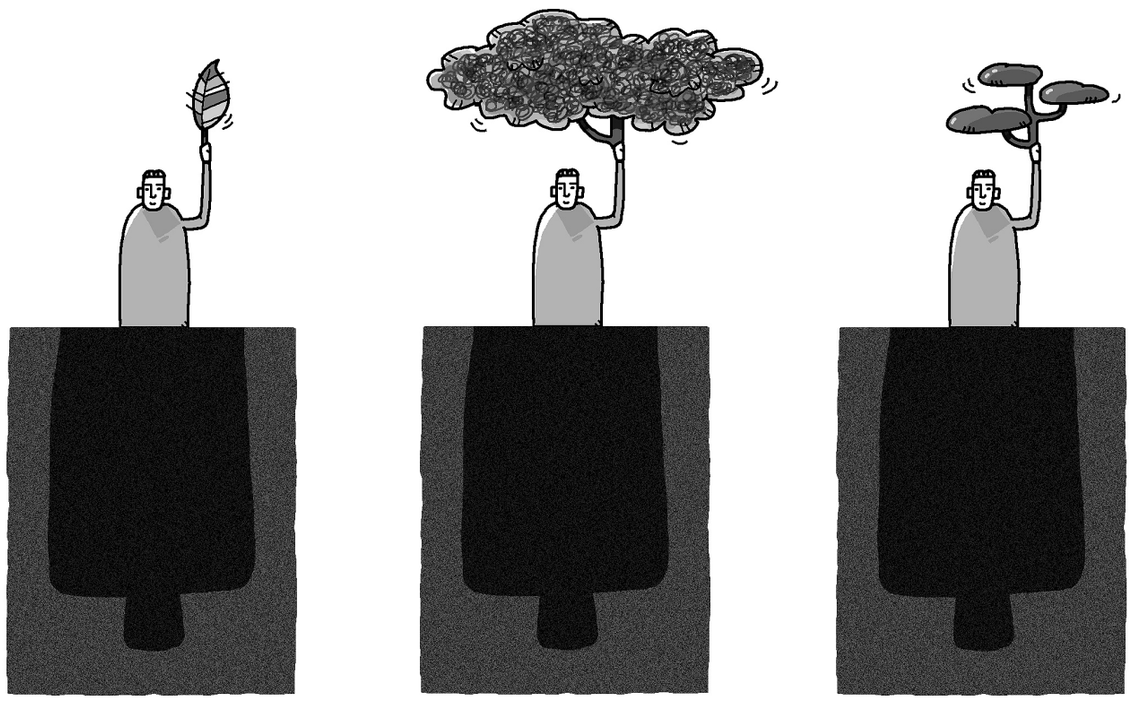
남의 말을 들어서 끄달리지 말고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아라


그림 · 최주현

하하하…. 괜히 웃음이 납니다.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는지 또 내려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찹찹히 그냥 올라왔습니다. '난 허구장창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뭐 할 말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고 있나.'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남녀를 막론해 놓고 숱한 사람들의 아늑하고 따뜻한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춥고 몰아치는 추운 바람에 쌩쌩하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다고요. 따뜻하게만 일생을 보낸 사람들은 울 안에서 핀 꽃과 같아서 험악한 데 내놓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 얼어 죽기 똑 참하고, 바람에 쓸려서 뿌리까지 파여서 아주 죽기가 일쑤죠. 그러나 험하게 내버려 던져진 그 어떠한 꽃송이라든가 풀잎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세워 놔도 그건 죽는다 안 죽는다 또는 쓰러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뜩 생각난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도 우리는 그렇게 가고, 한 걸음에 한 일생이라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날 때는 바로 준비의 한 일생이요, 어른이 됐다면 애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제가 그때가 한 여남은 살 될 때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두 남녀에게서 들은 소리입니다.

그 두 남녀가 부부로 만나기 이전에 남자는 삼 남매였는데, 예전엔 염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불치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서 삼 남매만 고스란히 남았답니다. 그랬는데 막내인 자기는 두 살이고, 누이는 다섯 살이고, 형은 아홉 살이었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볼 때는 도저히 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두 살 먹은 거를 어느 어린애 못 낳는 집에 양자로 줬답니다. 참, 일생이라는 것이 그런 일생이 있는가 하면 저런 일생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살 먹은 거는 자기의 친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고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형이 있는지 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고부터 네 살이 되자 그 집에서도 어린애를 낳았답니다. 어린애를 낳게 되니까 호적에다가 맏이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법적으로 해 가지고선 떼어 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올렸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러고선 대하는 게 좋지 않아서 '왜 엄마 아빠가 저러나?' 하고선 이상스럽게만 생각하고, 또 남은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나무를 해 오라고 하고 그래도 엄마 아빤 줄 알고 살다가 일곱 살이 되었는데 어느 스님이 오셨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을 쫓아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을 쫓아서 가면서도 살아가면서 이상스러웠던 그런 생각, 슬픈 생각, 또 스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며, 그 스님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그렇게 한 거는 또 뭐며, 그 이유를 몰라서 궁금하면서도 어린 마음에도 부모 떠나는 것이 너무나 슬펐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 심부름도 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열 몇 살이 돼서 열아홉 살이 되기까지 나무를 하고 그러는데 참 착한 스님을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자기의 눈도 뜨게 됐고 좀 알았답니다. 그랬는데 열아홉 살이 되고 보니까 그 스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얘기를 쫙 해 주면서 너는 성이 아무개며 너는 그렇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그 사실을 다 얘길 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선 말기 때 군인으로 입대를 했답니다.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군인으로 살면서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버려진 한 풀잎이 뿌리를 내리고, 들풀이 되지 않고 한 떨기가 돼서 오고 가는 행인들에게 그래도 입맛이라도 적셔 주지 않을까. 배고픈 사람들의 입맛이라도 적셔 주게 한 떨기가 돼서 뿌리를 깊이 박자.'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의 덕이라고 하고 그 스님의 덕이라고 하고, 그 스님을 아버지 삼아 그 마음이 참 깊이깊이 사무쳤답니다. 그래서 사무친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무예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장군이라는 이름을 땄답니다. 그 장군이라는 이름을 땄을 때 스물여덟, 아홉이 됐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내리듯 한 것은 뭐냐 하면 조선이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서른세 살엔가 서른네 살엔가, 그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서른두 살이라던가? 하여튼 그때에 조선병이 다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흩어지고 난 뒤에 나와서 근근득생으로 그저 아무거라도 해서 좀 뿌리를 박자고 무지하게 혼자 애를 썼답니다. 그 스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그걸 따르면서 수년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른 몇 살이 됐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물감 공장을 갖게 됐고 과수원도 조금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장가를 들었는데, 나이가 어렸답니다. 자기보다도 열일곱 살이나 열여섯 살이나 이렇게 아래를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 가슴에 맺힌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무예를 배우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틈에서 살려니까 구역질 나는 일이 너무 많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봤고 겪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젊은 혈기에 그, 무예를 배웠겠다 그러니까 그저 여기 가서 일을 저지르고, 아마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환희심이 나는 일이었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건 악조건이었지요. 그래서 힘드는 줄도 모르고 가는 길에다가 밤새도록 구덩이를 파고선 그냥 똥을 퍼다 부어서 말들이 전부 그리로 빠지게끔 만드는가 하면 밤중에 오고 가는 사이 없이 그냥 훌 두들기곤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탄로가 나니까 쫓겨 다니느라 볼일을 못 봤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쫓기고 저기 가도 쫓기고, 여기에서 일 저지르고 저기에서 일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에 한 번 밤중에나 가만히 와서 자기 마누라를 한번 보고는 밤중에 도로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육 남매를 낳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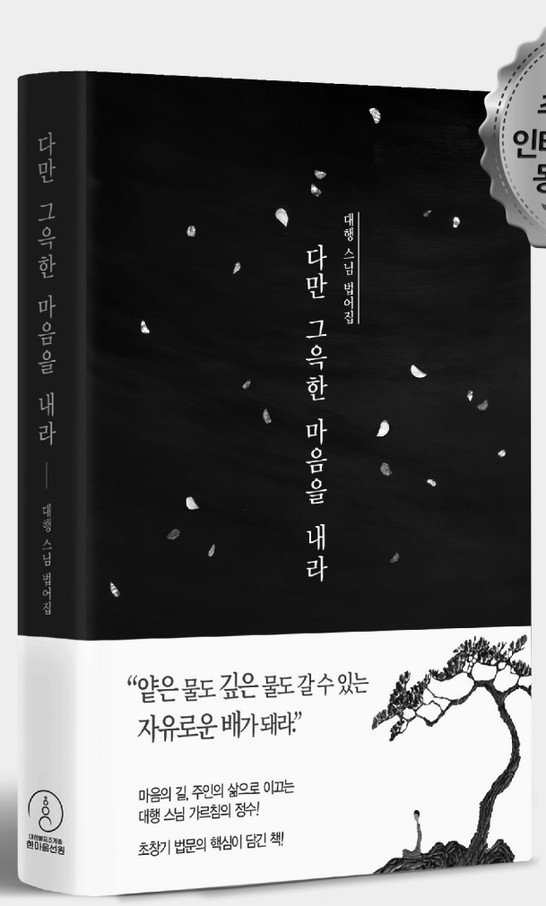
그런데 육 남매 낳기 이전 얘기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깐 남편을 잡기 위해서 부인을 데려다가 엉덩이나 뭐, 넓적다리 이런 데를 담금질을 해서 고문을 해도 절대로 그 부인은…, 부인 자체가 모르기도 하거니와 바느질품을 팔아서 살면서 여자는 벙어리가 되고 참아야 하고 또 귀도 먹어야 하고 남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하고 보는 것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미덕이 아주 뿌리가 박힌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도 높았고 또 백 씨네 외딸이었고 참으로 얌전하고 갖춘 분이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안부모가 돌아가시면 여자가 염을 해서 다 하고 또 바깥 분이 돌아가시면 아들들이 염을 해서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반의 집에서는 다 그거를 갖추어서 배웠더랍니다. 그렇게 미덕이 있는 그 여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엉덩이가 안으로 곪아서 이리도 터지고 저리도 터지니까 시운을 피우면서 그것을 아물려 가면서 해도 또 절로 터지고, 그러니까 젊은 날을 그냥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죽음을 몇 번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말이니깐 그렇지 그 일생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일제 시대 때는 다꽝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서 그걸로다 연명을 하고, 남자의 일생도 여자의 일생도 그렇게 하고 쫓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다 몰수를 당하고 참 가난하기가 짝이 없었겠죠. 그러한 두 분을 나는 여남은 살 될 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장 네 시간을 그 얘길 했습니다.

빼먹은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그 얘길 쭈욱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버려진 막풀이라도 그 뿌리만 깊이 박는다면 바로 한 떨기의, 입을 축여 줄 수 있는 떨기가 될 수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 곱게 자란 사람은 금방 나가면 얼어 죽기 쉽고, 또 바람에 쓸려서 뿌리도 파지고 그러지만, 버려진 그 풀은 너무도 뿌리를 깊이 박기 때문에 돌로 아무리 눌러도 새싹은 다시 나고 다시 난다. 그러면서도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양단간이 있다. 그렇게 버려진 풀잎도 한 떨기가 돼서 오고 가는 행인들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입을 축여 줄 수 있고 목마른 사람의 입을 축여 줄 수 있지만, 그

☞ 18면으로 계속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